

“이래도 가덕군이 안됩니다!”

팩트체크

- 장 애 물
- 운 항 시간
- 소 음 영 향
- 활 주 로
- 이 용 객
- 항 공 화 물
- 확 장 성
- 환 경
- 사 업 비

김해공항 확장

VS

가덕 신공항

충돌위험 높음
야간운항 불가
소음피해 극심 (2만3천 가구)
활주로 3,000m
연간 29백만명 이용
항공화물 연간 6만톤
확장 불가
환경파괴 최대
사업비 6.9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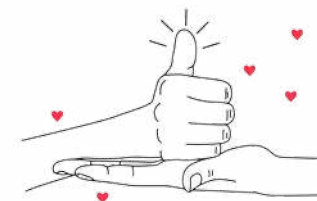
안전함
24시간 운영
소음피해 없음
활주로 3,500m
연간 53백만명 이용
항공화물 연간 63만톤
확장 가능
환경훼손 최소
사업비 7.5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시설과 사람들



부산시설공단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입니다.



#의료진_덕분에
#부산시민_덕분에

코로나19와 힘겨운 전쟁 속에서도
의료진과 부산 시민들께서 보여준
양보와 희생은 빛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부산시설공단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차부심입니다.

CONTENTS

PART 01 행복을 말하다

특 집	코로나19 6개월, 부산시설공단 타임라인	06
사회 공헌	코로나19,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
공 원 행 사	힐링이 필요한 당신, 공원 자연학교로 오세요	14
포 토 에 세 이	부산시설공단 대청소 특급작전 현장	16
재 난 대 비	여름철 폭염대비 이렇게 합니다	20

PART 02 시설을 말하다

현 장 경 영	부산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Story	22
시 설 탐 방	산성터널 접촉도로 개통소식	26
	부산시민공원 기부숲 조성 현장 속으로	28
알 쉴 시 잡	부산시설공단 '유튜브' 편	30
시 설 과 사 람 들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기술 개발	32

PART 03 기쁨을 말하다

신 규 사 업 운 영	전국 최초!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마마콜'	36
인 권 경 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권보호 행동강령 제정	38
공 단 사 람 들	부산시설공단 본사 요리 경연 대회를 가다	40



06



12



17



23



28



41



46



55

PART 04 당신과 함께

인 터 뷰	부산시설공단 작가들을 만나다	42
청 년 칼 럼	공익 실현의 꿈이 확고해진 부산시설공단에서의 두 달	44
대 학 생 홍 보 단	2020 부산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을 소개합니다	46

PART 05 For You

Culture&life	당신 삶의 숨겨진 라떼효과를 찾아서	48
심 리 학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자세	50
즐거로운회사생활	직장생활 예절편	52

PART 06 뉴스더하기

소 식	공단뉴스	54
S N S 이 벤 트	SNS 속 부산시설공단	58

2020 Vol.83

발행인 추연길
발행처 부산시설공단(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74)
기획·편집 사회적가치실현팀 051.860.7924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 디자인예감 051.802. 9191

특 집

코로나19 6개월, 부산시설공단만의 타임라인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의 확산.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부산시설공단의 대처는 빛났다. 코로나19 확산 속 긴급 대책 회의에서부터 사업장 휴장,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통해 조심스럽게 시설물 재개장을 준비하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부산시설공단의 6개월을 돌아본다.



2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회의

코로나19 발생 후, 방역에 집중해 온 부산시설공단도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본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임시 휴관, 시민공원 내 뽀로로도서관·어린이영화관·공방·대관시설·놀이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물 임시 휴관, 영락공원 화장 및 빈소 방문 등 조문객 최소화, 두리발 이용객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광안대교 하이패스 권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갈치시장,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납부 유예 또는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3월 2일 부산시민공원, 부산영락공원, 광안대교 등 3곳에서 직원 대상 단체 헌혈 진행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부산시설공단은 코로나19로 빚어진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민공원·부산영락공원과 광안대교에서 긴급 단체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총 1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한 이 날은 2010년 처음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였다.

3월 13일 코로나19 극복 기원 어린이대공원 캠페인



코로나19를 서둘러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염원하며 공단 임원 및 3급 이상 간부 등 50여 명은 어린이대공원에서 만남의 광장 물품보관소, 벤치, 돌레길, 음수대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 정비와 살균소독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3월 18일 자갈치시장 재개장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이 18일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 초청으로 부산지역 6개 공사·공단 기관장들이 모였다. 자갈치시장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인을 위로하기 위해 『오이소! 자갈치! 공사·공단 간담회』를 열어 자갈치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4월 해외유입방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4월, 지역 감염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와 함께 긴급 수송 체계를 갖추고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30대를 긴급 투입하여 해외 입국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였다. 공단 직원들은 주·야간 조를 나누어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부산역 플랫폼 지원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하였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의 운송을 맡은 일부 복지매니저들은 집에 귀가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시설에서 자가 격리 한 채 출퇴근하였다. 복지 매니저들은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방진복을 입고 운전을 하고, 수송 전후 차량의 방역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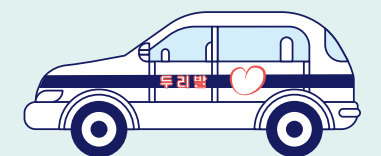
부산시설공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효율적인 비상수송을 위하여 본사 안전관리팀 주관 현장 상황실을 비상 수송이 펼쳐지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각 본부별 지원인력 근무자를 지정하여 비상수송 근무 집중에 대한 피로감을 최소화하였다.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은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

숫자로 보는
해외입국자 두리발 수송 운영 현황



-  두리발 차량 **30대** 투입
-  약 **4,700여회** 운행
총 **7,500여명**을 수송
-  총 수송분담율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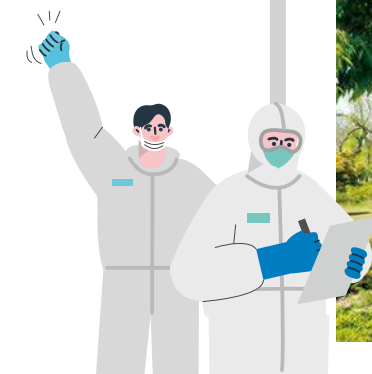
(2020년 6월 말 기준)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속 시설물 재개에 돌입하다



지역 감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에 따라 부산시설공단도 시설물 재개 준비에 돌입하였다. 먼저 2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지 중인 영도대교 도개 재개를 대비하여 월 2회 시운전과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는 5월 6일 일제히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7일부터 실내 시설을 포함해 전면 개방에 나섰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공원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개인 간 거리를 두는 등 생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는 이제 장기전이 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참 잔인한 바이러스”이다.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2차·3차 감염으로 확산되면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19에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격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19 백신임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지켜낸 ‘상호 신뢰와 포용’ 정신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안녕 여름!
안녕한 부산!

생활 속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공공기관 합동 성금 모금 동참 및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마스크, 손소독제와 헌혈증서 전달

시민안전실



부산진구 연지동 본사 인근 취약계층 9가구 방역 소독 활동 및 마스크, 손소독제 전달

교량관리처



남구장애인복지관에 쌀, 생필품과 방역용품 기증

경영혁신실&부산시민공원



백혈병 환자 교육공간 희망다미엘니스센터에 방역 소독 활동

도로관리처



영광재활원에 손소독제 기증, 방역 소독·시설물 정비 봉사 진행

주차관리처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방역 소독 및 마스크 등 물품지원

시설관리처



중구보건소 의료진과 근무자에게 격려물품 전달

플랫폼관리처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 방역 소독과 손소독제, 소독약품, 다과 등 전달

부산시민공원



부산진구 이웃사랑 봉사센터에 쌀 기증 및 사랑빛·부산진·수 지역아동센터 방역 소독 활동

사회복지처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역 및 살균소독, 소독약품 등 기증

상가관리처



의류, 도서 등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

공원관리처



- 중앙공원사업소 · 어린이대공원사업소
행복드림 공동작업장 방역·소독·환경정비, 소독용품과 생필품 기부
- 금강공원사업소
온천지역아동센터와 튼튼어린이집 방역·소독·환경정비, 면 마스크 기부
- 태종대유원지사업소
주변 인근 상가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 전개

부산영락공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소독과 기계·전기 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배려와 나눔 덕분에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함께 동참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다.

힐링이 필요한 당신, 공원 자연학교로 오세요

요즘처럼 심리적 방벽이 중요한 적도 없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친 당신을 치유하기 위하여
부산시설공단이 공원자연학교를 준비하였다.
몸과 마음이 지친 당신, 바람·숲·나무가 있는 자연학교에서
심신을 달래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_ 김도경 주임(공원기획팀)

생태문화해설 교실

 **운영기간** : 2020년 6월 ~ 10월(5개월)

※ 날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장소** : 중앙(대신)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참여대상** : 유아·청소년(15 ~ 30명)

 **내 용**

- 공원·유원지 내 관찰·체험 활동 및 자연물 활용 만들기(편백, 연잎 등)
- 숲과 친구 맺기(대신공원), 숲과 교과 여행(어린이대공원), 숲과 오래된 미래(금강공원),
지구의 부모 만나기(태종대유원지)
- 여름 방학, 가을맞이 특별 프로그램 등 계절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가족 가드닝 교실

 **운영기간** : 2020년 6월, 9월(2·4째 주 토요일, 4회 예정)

※ 날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장소** : 어린이대공원

 **참여대상** : 가족 단위 참가자(20명 내외)

 **내 용**

- 공원 내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와 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기술 전달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미니 가드닝, 드라이플라워 등을 주제로 진행

식물 세밀화 교실

 **운영기간** : 2020년 9월 ~ 10월(6회 과정)

※ 날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장소** : 금강공원

 **참여대상** : 그림에 관심 있는 성인(20명 내외)

 **내 용**

- 공원의 식물 등 관찰, 간단한 이론 수업 후 세밀화 실습 교육

접수방법 : 부산시설공단 공원 문화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접수(www.busanpark.bisco.or.kr)

* 모든 프로그램 사전예약 필수, 단체 예약문의(051.860.7816)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부산시설공단 대청소 특급작전 현장 (광안대교 & 용두산공원)



광안대교와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이다. 지난 3월, 부산시설공단은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처·교량관리처·공원관리처가 힘을 합쳐 광안대교와 용두산공원 일원에 대청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느 때보다 힘들었던 봄, 대청소를 통해서 코로나19도 깨끗하게 씻겨내려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은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섰다.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인 광안대교는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불리는 광안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이 날 광안대교 주탑 청소에는 특별히 추경길 이사장도 참석하여 힘을 보태었다. 105m에 달하는 광안대교 주탑을 고압물분사기로 물청소하고 도로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청소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와 안전 점검이 함께 진행되었다. 겨울철 눈·비·매연 등으로 더럽혀진 광안대교는 어느덧 묵은 때를 벗고 깨끗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용두산공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이순신 장군상도 겨우내 묵은 때를 씻고 번쩍이는 위용을 자랑하였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56년 3월 제작되어 어느덧 65년의 나이를 먹었다. 고압물청소를 통해서 반짝거리는 이순신 동상을 보고 있노라면, 1592년 부산포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동상의 역사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부산포해전이 벌어진 곳은 용두산공원에서 내려다보이는 북항 일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이순신 동상이 깨끗하게 씻기는 모습을 통하여 색다른 쾌감도 선사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더욱더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부산 시민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삶과 추억이 녹아있다.

공단은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부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름철 폭염대비 이렇게 합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시민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철저한 폭염대비에 돌입하였다.
여름철 폭염 대비 대책과 온열 질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_ 성해진 대리(안전관리팀)



HP
MP

HP
MP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주요증상 고열, 땀, 빠른 맥박 및 호흡, 두통, 오심, 피로감, 근육경련

대표질환

-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열사병**
-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 팔, 다리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 시민 접점시설 내 폭염 저감시설 조성

- 시민공원 및 송상현 광장에
대형 파라솔 · 쿨링포그 · 스마트파고라 등 설치
- 시민공원 기부숲(농협) 내 폭염저감시설 및 그늘나무 식재



☀ 시민과 함께하는 폭염 타파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공원 야간 방문자를 위한 「그린씨네마」운영
- *기간 : 2020. 8. 1. ~ 8. 5. (예정)
- *장소 : 하야리아 잔디광장 일대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 운영시기 : 7월 ~ 9월(폭염대책기간 한시적 운영)
- 쉼터지정 : 중앙공원 대기실, 용두산공원 휴게실, (구)대신공원 사무실



☀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철저

- 온열질환 예방 3대 요소(물, 그늘, 휴식) 제공 철저
- 폭염 경보 시 오후 시간대 야외 작업 중지 및 행동요령 전파

TIP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함 → 119 구급대 도착 시 병원으로 이송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 구급대 요청

- *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 수분 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부산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STORY

요금징수,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 소속이던 405명의 직원들이
2020년 4월 1일부로 부산시설공단의 정규직이 되었다.
추연길 이사장은 부산 대표 공기업의 정규직원이 된 이들이
하루 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곳곳을 찾아 격려에 나섰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부산시설공단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12월까지 1년 동안 총 9차례의 노사·전문가 협의회와 4차례 이상의 업체 간담회를 거쳐 405명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동일 업무, 동일 대우」라는 노동권 보장 원칙을 지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을 소개한다.

추연길 이사장, 현장에서 직원 고충을 듣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 부산시설공단은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공단은 2018년부터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13차례 이상의 협의회와 면담 등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모두 405명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직종별로 미화 213명, 순찰·경비 75명, 요금징수 90명, 주차·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27명 등이다.

전환일자 및 인원

2020. 1. 1.(206명) → 2020. 3. 1.(109명) → 2020. 4. 1.(90명)



추연길 이사장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사업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직원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전환 이후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특히 탈의실, 휴게실과 사무실 등 전체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였다.

차별 없는 일터, 소통·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



2020. 03. 27. 교량관리처 정규직 전환 직원 임용식 사진



2020. 05. 12. 중앙공원사업소 현장 직원 격려



2020. 05. 13. 시민공원 상황실을 점검하는 추연길 이사장



2020. 05. 13. 부산시민공원 직원 건의사항 수렴

추연길 이사장은 사업장마다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근무 적응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터널 지소에서는 여름철 대비 휴게 시설 냉방기 교체와 공원의 직원 휴게실 입구 확장, 직원 복지를 위한 각종 비품 설치 등을 당부했고 이외에도 교대 근무와 출퇴근 편의개선 등에 관한 직원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올해 초부터 정규직 전환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탈의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 1,07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큰 기업이 된 부산시설공단. 앞으로 공단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차별 없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경영진과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지속적 노력 전개

■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

정부가이드라인 및 지침, 전환계획 설명 등	(1차) `18. 12. 28.
정규직 전환업무 및 제외업무 대상 결정 등	(1차) `19. 02. 26.
60세 이상 고령자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 등	(3차) `19. 04. 03.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및 채용방법 결정 등	(4차) `19. 07. 11.
직종·임금체계, 전환시기 결정(`20. 01. 01.부) 등	(5차) `19. 09. 23.
전환채용 및 공개채용 인력규모 결정 등	(6차) `19. 11. 18.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정규직 전환시기 결정	(7차) `19. 11. 26.
재직여부 오기 정정, 전환평가 대상 추가 등	(8차) `19. 11. 29.
요금징수원 최종 전환시기 결정(`20. 04. 01.부) 등	(9차) `19. 12. 13.

■ 광안대로 요금징수 업체와의 사전협의

계약기간 단축협의	(1차) `19년 08월
`20년 6월까지 이익요구	(2차) `19년 10월
`20년 6월까지 계약보장	(3차) `19년 11월
`20년 3월까지 계약단축	(4차) `19년 12월

■ 요금징수원과의 갈등관리 해결노력

- 부산시청·공단본사 앞 집회 참가자의 요구사항 청취 및 반영여부 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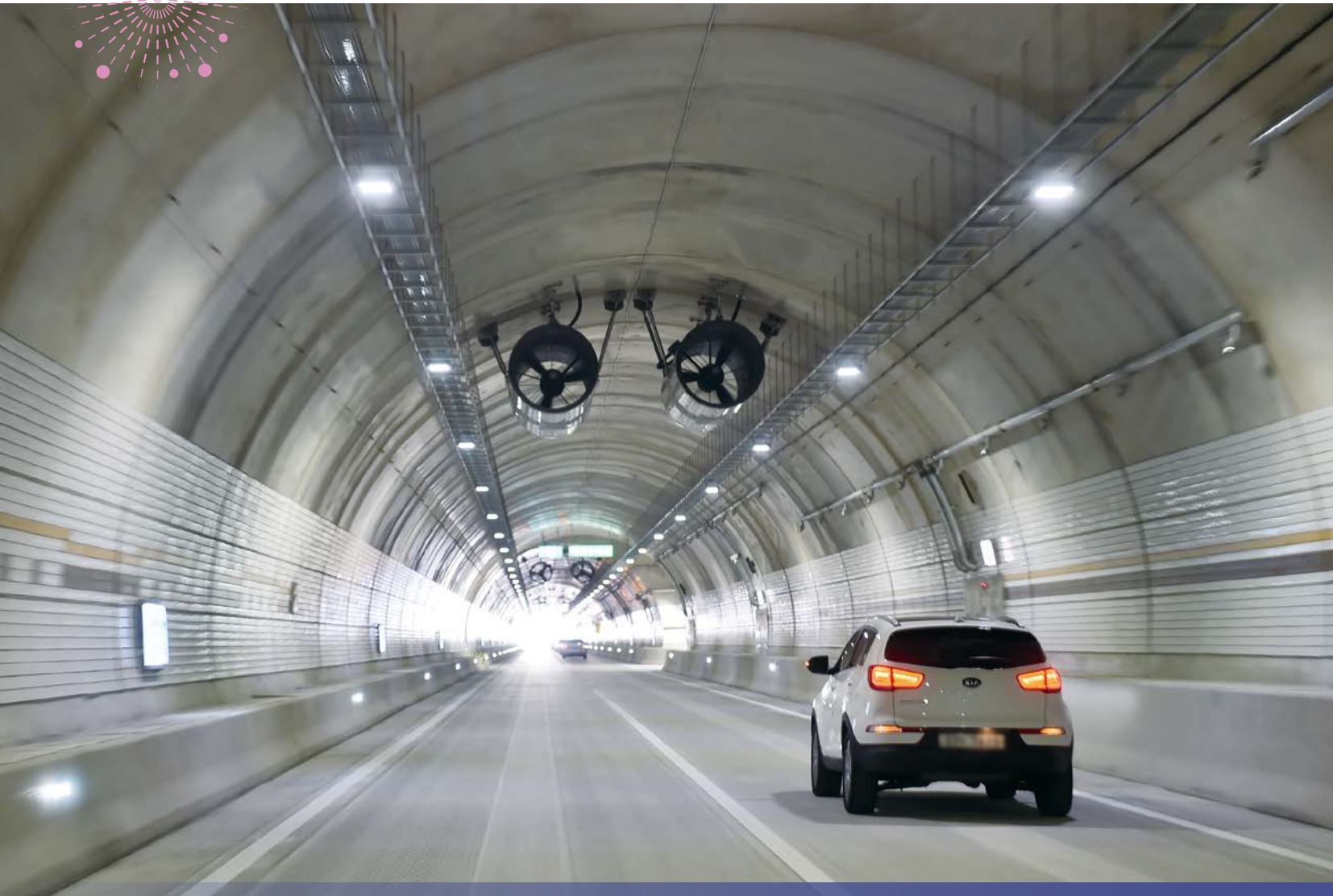
■ 요금징수원-경영진의 지속적 면담·협의

- 광안대교 방문설명, 이사장실 면담 등





부산의 숨통이 확 풀립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통



2020. 04. 22.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통식 현장



부산지역 통과 서를 잇는 부산 외부순환도로의 핵심구간 드디어 개통

2020년 4월 22일 오후 7시를 기하여 산성터널 금정 측 입구부터 회동 IC를 연결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 측)가 개통되었다. 접속도로 개통으로 산성터널 금정 측 구간은 지난 2013년 8월에 착공한 이래, 6년 8개월 만에 온전한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금정구 산성터널 금정 측 입구와 회동 IC를 잇는 총 연장 3.24km의 왕복 4~6차로로 총 사업비는 3,308억 원 (시비 1,978억 원, 국비 1,330억 원)에 달한다. 제한속도는 80km로 금정구 장전초교~윤산 입구까지는 지하차도(1.22km)이며 윤산 구간은 터널과 교량 등(2.02km)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성터널 금정 측 접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동화명대교(1.96Km)~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 측(1.68Km)~산성터널(5.62Km)~산성터널접속도로 금정 측(3.24Km)~회동 IC를 잇는 총 연장 12.5Km의 부산 외부순환도로망의 핵심구간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산성터널 금정 측 도로 개통은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민선7기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부산시민공원 기부숲 조성 현장 속으로

부산의 대표적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 6가지의 테마 숲이 조성되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이팝나무 숲, 소나무 숲, 대나무 숲, 농업테마 숲, 무궁화 숲 등 6개 테마를 통하여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에게 더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생 사진이 필요한 당신!
가까운 주말, 6가지 매력이 살아 숨 쉬는
부산시설공단 기부숲으로 피크닉 가보자!



5월 21일 오전 11시 준공식에는 시민공원 관리 주체인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을 비롯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농협중앙회 광정점 부산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기부숲 조성 준공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는 가운데 최근 힘든 수목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를 담아 차분히 진행됐다.

「부산시민공원 기부숲」은 농협의 기부 제안에 따라 부산의 대표 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 미세먼지 차단 등 쾌적한 공원녹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조성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부산시민공원 내 6만 5천㎡에 4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 숲, 소나무 숲, 대나무 숲, 이팝나무 숲, 농업테마 숲, 무궁화 숲 등 여섯 가지 테마로 소나무 등 32종 28,294주(초본류 72,006본)를 식재하고, 전포천을 따라가는 산책길에는 물레방아, 쉼다리 등을 설치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조성된 시민공원 기부숲이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의 리틀 포레스트가 되길 바란다.



알면 알수록 **즐거워**있는 부산시설공단 **잡학사전**

부산시설공단 '유튜브' 편

바야흐로, 유튜브의 전성시대다.

지상파 TV 등 올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이용자 중 60%가 유튜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무려 93.7%에 달할 만큼 유튜브는 대중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미디어 전성시대를 열어젖힌 유튜브의 등장, 부산시설공단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유튜브란?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산시설공단 실시간 CCTV 교통정보

부산시설공단은 전국 최초로 주요 시설물 상황을 실시간 스트리밍하며 효율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계대상은 광안대교, 주요 도로, 주요 터널 등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이다.

실시간 스트리밍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 따위의 휴대용 단말기나 컴퓨터에 내려받거나 저장하여 재생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설공단 직장인 브이로그

부산시설공단은 올해 채용을 앞두고, 올바른 직무 정보 제공 및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직무별 임직원 브이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녹지직, 행정직 등 각 직무별 임직원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며 직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브이로그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가리킨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단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쉽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선정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기술 개발

글_곽은정 과장(기술혁신팀)

현재 에너지 절감형 조명 시스템은 전통 조명을 고효율 또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타이머 또는 센서에 의해 단순히 점·소등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도 및 색온도 등 일정한 성능 기준의 부재와 IoT 보안에 대한 취약함도 현재 에너지 절감형 조명 시스템의 개선사항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단순 에너지 절감형 조명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스마트 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부산시설공단,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컨소시엄으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이라는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 하였으며, 지난 5월 선정되어 총 사업비 347억 원(국비 255억 원, 시비 18억 원, 민간 74억 원)을 확보하였다.

기존 스마트 조명 시스템 문제점 분석

표준 API 및 인증 부재

- 다양한 제조사 간 상호운용성 부재
- 성능 기준 부재(ex.저조도 밝기, 색온도 불일치)
- 조명기기 호환성 부재



지능형 에너지 절감 & 보안 부재

- 똑똑하지 못한 단순 에너지 절감 시나리오 → 빛 공해 유발, 주민들의 밤잠 설치는 원인
- 2020년 2월 5일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필립스 휴 보안 결함 발견(브릿지 장악, 내부 네트워크 침투)
- 12개월 동안 스마트 홈 기기에 대한 공격 약 70% 증가(카스퍼스키 조사)
- 해외 선진사의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전환

상용기물 미비, 시장잠식

- 설치·유지 보수 필수 상용 기술의 미비
 - 설치의 어려움(설치 시 조명기기 위치 수동 매핑)
 - GW뿐만 아니라 스마트 조명의 원격 Firmware upgrade 필요(보안 문제 필립스 휴 : GW만 업데이트 가능)
- 영세한 중소 조명기업 : 조명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 IoT 지식 미비, 협업 미비 → 사업화 & 상용화의 걸림돌
- 국내시장 잠식 : 중국 저가형 조명 제품, 고품질의 해외 선진사

스마트조명 시스템 문제 해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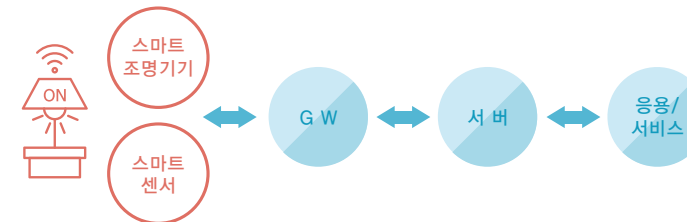
전통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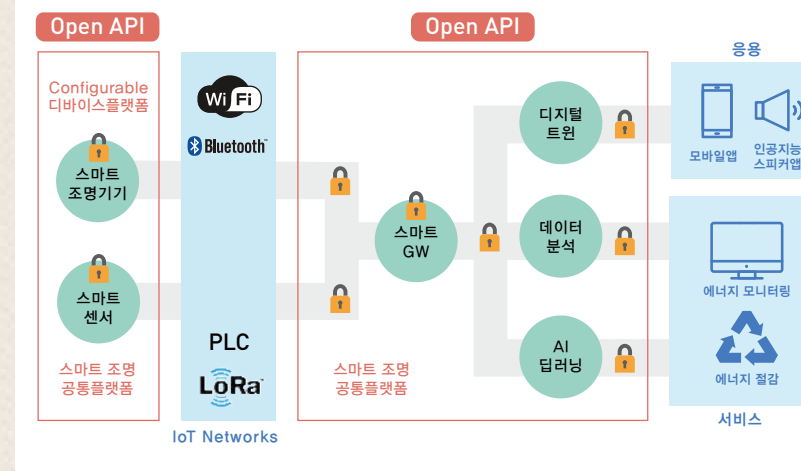
LED조명



스마트 조명 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본 사업의 사업비는 347억 원으로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5년 동안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4개의 분야로는 주거공간, 상업공간, 산업공간, 실외조명으로 기존 조명 대비 75%가량 절감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조명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한 상용화 및 시스템의 표준화와 인증 체계,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ICT 기술을 융합한 조명 설비의 에너지 수급관리 신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스마트 조명의 시장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 및 국내외 표준 기술 개발 연구에 지역 조명기업과 ICT 기업의 공동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며, 지역 내 스마트 조명 및 시스템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유지 기반 마련 등의 지역업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다.

우리 공단은 4개의 분야 중 2개의 분야인 상업공간과 실외조명의 실용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며, 실용성 및 편의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대상지로는 서면 지하도 상가 중앙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동명·영도 고가교, 가덕터널, 회동화물차고지, 학장 공영주차장 등 7개소이며, 총 2,370개의 실내등 및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이 대상이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혁신팀 직원 및 각 사업소의 직원들은 과학기술인으로 등록되었다.

연구개발 초기에는 기존 전통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동시에 하여 각 분야에 맞는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개발된 스마트 조명은 우리 공단 등 테스트 베드 사업장에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실증하게 된다. 각 분야별로 조명을 제어해야 할 방향이 다르기에 실증단계에서 조명제어 방식 및 방법을 점검·검토하여 편의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참여로 신기술을 접목한 조명설비 에너지 수요관리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대비 75% 절감함으로써 국가적 정책인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축비 3,592백만 원과 함께 연간 187백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등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예정이다. 선제적인 4차 산업의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직접적인 연구개발 참여로 부산의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으로써 시설물 전문 기관으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 최종목표

상호호환성이 있는 에너지 최적 절감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기반 대규모 리빙랩 실증 평가 및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을 통한 스마트 조명 시장 활성화

- **조명 에너지 절감률** : 기존 조명 대비 **65%**(주거공간), **70%**(상업공간), **75%**(산업공간), **75%**(실외조명)
- 기존 통신 프로토콜 호환 **5종**, **256개** 디바이스/게이트웨이, 제어정밀도 **±5%**, 동작정확도 **97%**, 대기전력 **0.5w**
- 국내표준(KS, 고효율) 제개정 **8건**, 국제표준(NP 또는 CD) **2건**, 소비자만족도조사 **3건**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조명 플랫폼

- 호환성 향상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 에너지 절감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사물지능지원 AI 플랫폼
- 스마트 조명 공통 플랫폼 기술(**IoT 보안**)
- 빅데이터 수집 분석 데이터 플랫폼
- 상호운용성 지원 IoT 연동 플랫폼

AI 적용 스마트 조명 리빙랩 실증

-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
- 실증자료기반 효율적 관리·운용 기술(**리빙랩 커뮤니티**)
- 리빙랩 실증
- 디지털트윈기반 3D 모델링 기술

표준기반 스마트 조명 인증

- 스마트 조명 국제 및 국내 표준
- 인증체계&인증센터 구축
- 성능·신뢰성 시험 규격 및 시험 장비 개발

트랙레코드 활용 BM 발굴 & 상용화

- 트랙레코드 활용 제품 상용화 기술
- 실증 적용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5건**)
-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공간별 특화 서비스 발굴(**8건**)

지역 상생! 동반 성장! 시설을 빌려드립니다!

연구개발(R&D) 제안 창구

민간 기술 공공시설 검증 플랫폼

2020년 부산시설공단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 안내

부산의 도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에 확산 보급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연구개발 현장실증 플랫폼을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제안자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유지관리 혁신기술 제안

02 부산시설공단

7종 28개 공공시설
현장 실증 지원

제안방법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방문
연구개발(R&D) 제안창구 접수

✉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후 E-MAIL 제출
BISCO_RND@bisco.or.kr

제안분야

첨단기술을 융합한 시설 유지 관리 혁신 기술
(토목, 건축, 녹지, 전기, 기계, 통신 등 전 분야)

주요시설

부산시설공단 주요 시설물 도로(교량/터널), 주차시설, 지하도상가, 공원, 건축물, 장사시설 등

신청자격

연구기관, 학술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 (컨소시엄 가능)

신청절차

제안서 제출 > 위원회 심사 > 현장실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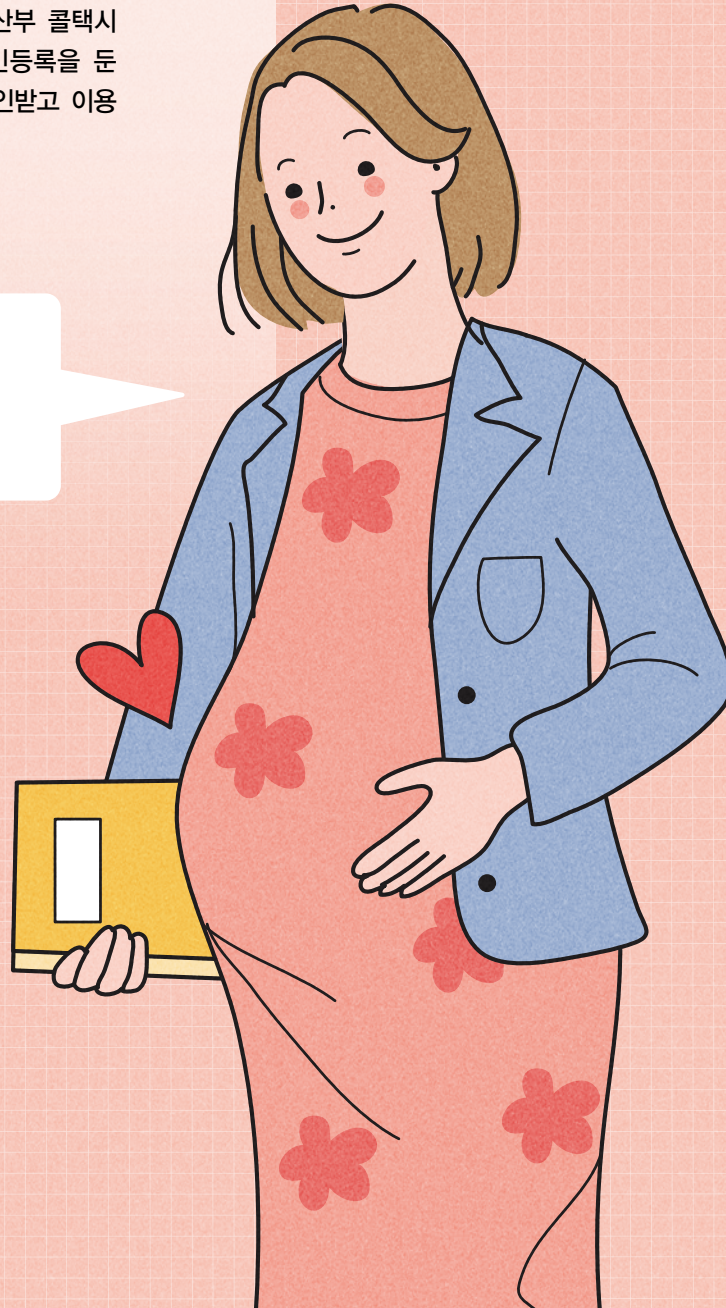
전국 최초!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마마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시가 손잡고 전국 최초의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이 3월 16일부터 운행되었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부산시설공단이 함께한다.



마마콜이 운행중이면
양보운전 부탁드립니다!



NOTICE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영을 시작합니다!

임산부의 병원 진료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갑니다!



마마콜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병원 진료 등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통해 저출산 해소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 도입



이용요금

택시 이용요금의 **35%** (신용카드 결제, 현금 사용 불가)



이용방법



전용 앱을 통한
사전등록 신청



앱을 통한
차량 배차 신청



마마콜 이용자
승인 확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임신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 출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한달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4회(할인액 누계 월 20,000원 한도)

부산시설공단,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권보호에 앞장섭니다

우리 공단은 400여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협력사 9곳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권 보호 행동 강령’을 제정·준수하기로 하고, 노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노인일자리 행동강령에 서명한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



강서시니어클럽 배현옥 관장



부산동구시니어클럽 이동훈 관장



부산서구시니어클럽 이난희 관장



부산진시니어클럽 권범현 관장



삼성희망네트워크 장윤순 대표



영도시니어클럽 전현수 관장



해운대시니어클럽 천영관 관장



부산시설공단 및 수행기관 행동강령 서명



2019 노인일자리 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이번에 공단이 제정한 행동강령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안내자료의 수요처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고, 협력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특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6개 주요 권리 보장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지역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협력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9만 8000여 명 이상의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58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 참여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사람이 먼저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인권보호 행동강령 홍보



한국시니어클럽 부산지회 방문 협의

부산시설공단 본사 요리 경연 대회를 가다

부산시설공단 본사 요리 경연 대회가 펼쳐졌다. 토너먼트로 이뤄진 이번 대회는 본사 각 부서들의 자존심을 건 물러날 수 없는 한 판이 펼쳐졌다. 아침 9시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부산시설공단 본사 요리 경연 대회 현장을 살펴보자.



직장 내 갈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산 시설공단에서는 이색 대회가 펼쳐졌다. 바로 부산시설공단 본사 요리 경연 대회가 그것! 5월 29일 첫 주자였던 총무인사팀과 사회적가치실현팀 연합조(이하 불빨간 사총기팀) 대 미래전략팀과 재무회계팀 연합조(이하 오늘은 나라가 밥해주팀) 붙은 대결에서는 비장한 전운마저 감돌았다.

‘불빨간 사총기팀’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 만두로 승부수를 던졌다. 요리 9단 고수로 불리는 총무인사팀 이승은 대리의 진두지휘 하에 팀원들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나라가 밥해주팀’ 역시 만만찮은 내공을 자랑했다. 비장의 무기인 새싹비빔밥으로 떡볶이와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본사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재무회계팀 박나라 주임은 막내같지 않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요리를 이끌었다. 결국 근소한 표 차이로 ‘오늘은 나라가 밥해주팀’이 승리를 거머주는 기쁨을 맛보았다.

두 번째 대결은 기획예산팀과 기술혁신팀 연합조(이하 칼잡이들의 월남쌈) 대 안전관리팀과 청렴감사실 연합조(이하 라떼는 말이야)가 붙었다. 먼저 ‘칼잡이들의 월남쌈팀’은 기술혁신팀 송성훈 차장의 현란한 칼솜씨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라떼는 말이야팀’에게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 했으나 안전관리팀 문지혜 주임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자신한 컵밥의 친숙한 맛과 커피 쿠폰 증정 깜짝 이벤트를 통하여



예상외의 선전을 펼쳤고, 재검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라떼는 말이야팀’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은 각기 다른 닭 요리로 진검승부를 펼쳤다. ‘오늘은 나라가 밥해주팀’의 데리야끼 치킨덮밥이 고른 호평을 받았으나, ‘라떼는 말이야팀’의 닭치고 칼국수가 이름처럼 강렬한 맛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요리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라떼는 말이야팀’에게는 상금 오십만 원이, 준우승한 ‘오늘은 나라가 밥해주팀’에게는 상금 삼십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번 요리대회는 단순히 재밌는 이색 행사를 넘어서 부서 간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연하게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상금을 수여한 추연길 이사장은 “요리대회가 직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고, 요리대회를 제안한 이정희 안전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단이 열린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본사 요리 경연대회 대진표



부산시설공단 **작가**들을 만나다

올 해 부산시설공단에서 걸출한 두명의 작가가 나왔다. 주인공들은 바로 총무인사팀의 김용원 팀장과 주차시설팀의 이국수 팀장.
자연을 주제로 첫 동화를 펴낸 신인작가 김용원 팀장과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등단한 후 두 번째 작품을 발간한 이국수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용원
팀장



《빼달아-기억의 서랍》 김용원 팀장(총무인사팀)

어린 시절 자연과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는 김용원 작가.
그의 바람처럼 《빼달아-기억의 서랍》이 많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

김용원 작가의
《빼달아-기억의서랍》
시설과 사람들 Vol.83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빼달아-기억의 서랍]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원 팀장

감사합니다. [빼달아-기억의 서랍]에는 바람이 송송 불어오는 계곡부터 시작해 자연의 놀이터가 된 담장, 야채를 동생처럼 보살피는 아이들, 사이좋은 햇님과 달님 이야기, 조약돌 형제의 우애, 운동장 위로 날아다니는 종이비행기, 딱따구리 삼형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꿈에게 꿈을 묻는 아이까지 새, 꽃, 해와 달, 산, 강, 바다 등 우리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자연에 관한 8개의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가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진영 작가의 따스한 삽화가 더해져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보통 직장인들은 출퇴근만 해도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책까지 출간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김용원 팀장

계기는 사실 소박합니다. 여느 때처럼 자녀들과 함께 서점을 방문하고는 아이들을 위한 순수 동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동심과 순수함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고자 약 3년 동안 직장 생활 틈틈이 동화책 집필에 매진해 오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세 기부 약정은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김용원 팀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인세 수익금 약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 기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김용원 팀장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야학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뿐만 아니라 헌혈에도 꾸준히 참여해 오는 등 평소 이웃사랑 실천의 모범을 실천해왔다.)



두 번째 시집 상재를 축하드립니다! 2015년 종합문예지 '문예시대'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시며 등단하셔서 이번에 두 번째 시집 '고도를 그리며'를 출간하셨는데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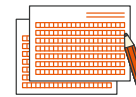


이국수 팀장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첫 시집(사람의 향기) 출간 이후로 4년 만에 <고도를 그리며>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과 사랑,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팀장님의 작품을 보면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진한 애정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국수 팀장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시상을 다듬으며 시를 원고지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제 삶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 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을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시로 표현하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팀장님의 앞으로 작품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국수 팀장

직장 생활 정년을 마치고 난 후에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책장에 보관만 하는 시집이 아니라 한 줄을 읽더라도 온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시 작업은 갯벌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꾸준한 시작을 통해 독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시, 힘든 세상을 살아 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단에서는 이국수 팀장의 작품 세계에 대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삶으로 승화시킨 휴머니즘 작품세계를 추구한다'고 평가한다. 한국농민문학관 우명환 관장(시조시인)은 '이 시인의 시를 읽으면 한 편 한 편이 주옥같고 독특한 시편의 전개와 논리 정연한 시 내림 등 짜임새가 시 창작 강의의 모범 교본으로 손색이 없다며 '현대시와 차원이 다른 서정시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신현득 아동 문학가는 '사람의 향기가 물씬 나는 천상 서정시인'이라고 평가한다.

[고도를 그리며]

이국수 팀장(주차시설팀)

자연과 인간관계 천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성찰하는 그의 시에서 삶을 응시하는 따스한 시선이 느껴진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요즘, 이국수 팀장의 서정시를 통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국수
팀장



이국수 시인의
<고도를 그리며>



부산시설공단 취업연수생 후기

공익 실현의 꿈이 확고해진 부산시설공단에서의 두 달

글_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나연

우리 공단은 지역 인재들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취업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 부산시설공단 사회적가치실현팀에서 2개월 간 동고동락한 김나연 취업연수생이 있다.

김나연 연수생이 말하는 부산시설공단에서의 2개월은 어떤 기억이었을지 함께 알아보자.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 말부터 2달 동안 사회적가치실현팀에서 실습을 했던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나연입니다. 먼저 부산시설공단 사보에 제 실습 후기가 실려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익 실현 이바지에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학교 내에서는 현직자 분들과 만날 기회를 접하기가 어려워 아쉬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관심 있던 부산시설공단 본사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현장실습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표로 하는 곳에서의 현장감 있는 배움이 무엇보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실습내용

실습에는 주로 **언론 모니터링 보조** 및 **SNS 콘텐츠 제작 보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언론 모니터링은 공단 직원분들의 매일매일의 눈과 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그에 대한 1년간의 통계는 한 해 동안 공단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비친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표가 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 보조를 통해, 업무 시 문서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달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부산시설공단이 부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체계적인 과정과 결과, 전략을 세우고 노력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는 SNS 콘텐츠 제작으로, 이전에 공공기관 관련 서포터즈를 해 본 경험을 살려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백전 홍보' 카드뉴스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응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는데, 부산시설공단 공식 SNS 계정에 제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처음 만든 카드뉴스를 보고 팀장님께서 '어느 직장에도 가더라도 꼭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다'라고 하시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셨을 때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응원 유치 카드뉴스 제작



동백전 홍보
카드뉴스 제작

기억에 남는 일



2020. 01. 18.
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팀
경기 운영지원 보조



1월 18일 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팀의 홈 개막전 지원 날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전까지는 경기를 보러 가는 관객의 입장으로만 스포츠 경기들을 경험했는데, 이 날은 경기 운영 지원 보조를 처음으로 해 본 날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있기 전 오랜 기간 동안 관련 현수막과 각종 이벤트, 권한나 선수의 라디오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언론 인터뷰 및 홍보를 위한 각 과정을 보며 경기 준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관중을 위한 기념품 배부와 자리 안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진행되었는데 많은 관객들이 홈 개막전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팀 내의 상의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홈 개막인 만큼 공단의 투자와 기대가 큰 날이었는데 경기 승리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이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리그가 일찍 막을 내렸지만 다음 시즌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단체로 경기 관람을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달이라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부산시설공단 사회적가치실현팀에서 실습하며 앞으로 공기업 준비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시설물들이, 알고 보니 부산시설공단 직원분들의 숨은 노력으로 깨끗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배움으로 보다 공익 실현에 걸맞는 적격의 인재로 성장해나가고자 합니다.**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주신 부산시설공단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새 얼굴! 2020 부산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을 소개합니다.

부산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 10기가 선발되었다.
특히 이번 대학생 홍보단은 무려 6.1 :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
6월부터 장장 5개월간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통 메시지가 되어줄 대학생 홍보단을 만나보자.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이 열렸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쟁쟁한 12명의 대학생 홍보단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산시설공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팀별 릴레이 브이로그 촬영 등 영상 제작 및 공단의 주요 사업 관련 카드뉴스 제작,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단 사업소 등을 견학하며 참신한 시각의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추연길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정희 안전혁신 본부장, 이정남 경영혁신실장이 함께 했으며 대학생홍보단 위촉장 수여와 앞으로 있을 5개월 간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연길 이사장은 "이번 대학생 홍보단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공단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라며 대학생 홍보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홍보단 배유진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외활동 등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부산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5개월의 활동을 통하여 부산시설공단을 시민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 홍보단은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공단 사무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활동 수료 시 최종 평가 성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및 우수 활동 표창장 등을 수여받게 된다. 부산시설공단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대학생 홍보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자랑스러운 얼굴, 우리가 바로 부산시설공단 10기 대학생 홍보단입니다!



배유진



홍새한별



주영찬



박태경



황채영



황기연



임은혜



최진호



강수빈



장서연



정상균



정인덕

직장인을 위한 소소한 재테크

당신 삶의 숨겨진 라떼 효과를 찾아서

글_ 고미숙

티끌모아 태산이 아닌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물 쓰듯이 푼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절약하면 큰 목돈이 될 수 있다.
20년차 베테랑 자산관리사에게 라떼효과의 강력한 힘을 알아보자.

스타벅스 커피 대신 스타벅스 주식을

얼마 전 회사 동료로부터 좋은 재테크 팁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바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해외 주식을 3천 원, 5천 원씩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하는 모바일 뱅킹 기능이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정한 주식을 자동으로 사는 기능이었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원하는 해외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하다 선택한 종목은 스타벅스였습니다. 직장인이 평일에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는 주로 점심을 먹기 위해서이고, 대개는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식후의 마약 같은 커피 한 잔, 직장인이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지만, 스타벅스 커피 대신 스타벅스 주식을 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떼효과의 강력한 힘

‘라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떼 효과’란 라떼 한 잔의 가격처럼 사소하게 낭비하는 돈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매일 라떼(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30년을 모으면 실제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 주식을 매일 5천원씩 사본다면?

5천 원	X	하루	=	5천 원
5천 원	X	30일	=	15만 원
15만 원	X	12개월(1년)	=	180만 원
180만 원	X	30년	=	5천 4백만 원

세이렌을 이기는 행동 장치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마치고 귀향하는 길에 세이렌이 사는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세이렌은 지나가는 선원을 노래로 유혹해 이성을 잃게 만들고 배를 난파시켰어요.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명령을 하여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부하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었죠. 이렇게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몸을 배에 묶도록 한 행동을 행동 장치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주식 5천 원을 사도록 설정한 것,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적금이며 연금으로 빠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기상벨이 울리도록 설정한 것, 스케줄 노트에 알람을 설정하는 것 등등 내가 통제하지 못할 미래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이러한 장치는 꽤 유용하며 실행해 볼 수 있는 곳이 내 주변에 무수합니다.

공교롭게도 스타벅스 로고의 주인공도 세이렌이죠.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에 매장을 열어 소설 모비딕의 일등 항해사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정하고 세이렌의 형상을 로고로 정했습니다. 세이렌을 로고로 정한 이유는 세이렌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자주 발걸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이렌에 다가가 죽은 무수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스타벅스 유혹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스타벅스 주식 사기라는 행동 장치를 설정했구요.

이렇게 쓰고 나니 고작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시지 않고의 일인데 도원결의라도 할 기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 없는 재테크 기술이지만, 대단할 것 없으니 한번 실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떼 한 잔이 누구에게는 실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담배 한 갑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숨겨진 라떼 한 잔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금액도 아니니 나에게는 어떤 라떼 효과가 있는지 되돌아켜보고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해요. 흔히들 하는 말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할 수도 있겠습니까?

고미숙 / <명동 부자들>,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 저자

은행 VIP 전담 자산관리사.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1999년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입사 후 10년간 PB(프라이빗뱅크) 센터와 WM(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6년간 수출입 및 무역의 업무를 담당했다. AFPK(개인종합재무설계사), 은퇴 설계전문가, CDCS(국제공인 신용장 전문가), 외환전문역 1종, 2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자세 - 외상후 성장에 대하여 -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증을 뜻한다.

모두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이는 외상 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꼴로 어떻게 살아? 진짜 인생 고되다 고돼.’

혹시 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루를 한숨 지으며 마무리하고, 하루의 시작 또한 한숨 지으며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다루어 왔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최근 이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인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생각지 못했던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경험한 후 빠지게 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신체 손상이나 심각한 마음의 힘겨움을 말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게 되면 겪게 되는 좌절감과 압박감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하루를 한숨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또한 경험해야 했던 일이나 놓여 있는 상황이 반복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좌절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모두 소진시키고 고갈시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니까요. 바스라질 정도로 우리의 생명력을 말려 버리죠.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역시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감염에 대해, 그리고 현재는 경기 상황의 악화와 불안정에 대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2. 같은 일을 겪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최근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룰 때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겪고, 좌절감과 압박감을 겪고,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의 모습에 관해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붙여 부릅니다.

바스라질 정도로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인상적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것은, 단지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닌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겪기 전의 모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강하고 견고해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다는 점**이죠.

#3. 그럼 과연 그들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하나

<외상 후 성장>을 겪는 사람들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갖게 되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은 회피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람들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곧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와 같은 무턱 댄 희망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별일 아니야.’ 부정의 모습을요.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의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과 놓여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추스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미 일어났고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억울함, 원망, 불안함, 분함, 후회, 답이 없어 보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헤엄쳐 나오기 위해 애를 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몰되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에 빠져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어 하는 사람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대응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는 <외상 후 성장>의 사람은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외상 후 성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은 특별하지만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바꿀놓을 수 있는 것은 걱정의 나머지 부분인 4%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이 4%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당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_도인종

성균관 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상담 박사과정 중 섬세한 성격에 관한 출판사 디어 센서티브를 만들어 섬세한 사람에 관한 책, <섬세한 사람에게 해주는 상담실 안 이야기>, <섬세한 아이, 연두>,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운 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출간했고, 연남동에 <연남동 심리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림 검사와 성격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 <Homo sensitive Girl, tears>라는 소설을 출간하였다.

슬기로운 회사생활

직장생활 예절편

슬기로운 회사생활을 위해서는 직장 동료와 상사 간에 꼭 지켜야 할 직장생활 예절이 있다.
당신의 대외평가와 업무역량을 높여줄 **필수적인 직장생활 예절**에 대해 알아보자!



출근했어요!

- 업무시간에 맞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10분 전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실에 들어와 망설이지 말고 상사와 동료를 향해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지각할 것 같아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할 경우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늦는 사유와 출근 예정 시간을 보고합니다.
- 상사는 물론 동료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슬그머니 앉지 않기)



조퇴할 때(오후 반차)

-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 하던 일을 마무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전화 약속을 여러 곳에 해둔 채로 조퇴하지 않습니다.



퇴근합니다!

-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한 후 퇴근합니다.
-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사무실 예절 리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해보세요



전화를 받을 때

- “안녕하십니까, OO팀 000입니다.”(인사말+소속부서+이름)
- 상대를 확인하고 용건을 확인합니다.
-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용건을 메모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전할 말씀 메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늦게 받을 때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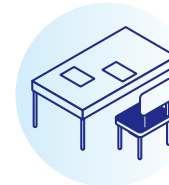
전화를 걸 때

- 용건을 사전에 메모한 다음 전화할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을 먼저 밝힙니다.
- 먼저 인사를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합니다. 통화가 가능하다면 목적을 이야기하고 상대가 급한 상황이면 용건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화합니다.
- 되도록 이른 아침, 식사 시간, 늦은 밤에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먼저 양해를 구한다.)
- 상대가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사이를 두고 조용히 끊습니다.



외출(외근)할 때에는

- 시간이 길건 짧건 미리 상사의 허락을 받습니다.
- 외출의 목적과 가는 곳, 사무실에 돌아오는 시간을 알리고 시간이 지연되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합니다.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요?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대신 전화를 받도록 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화 후 자리를 뜹니다.

T.M.I



부산시설공단이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와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슬기로운 직장생활 책자 2편을 동시에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부산시설공단이 직원들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지침과 회사의 경영활동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1편-직장예절'과 '2편-모두의 인권'으로 구성되었다.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이어 MOU 체결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부산시설공단은 2월 21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지하도 상가, 주요공원(매점), 자갈치시장 등 공단 시설을 임대한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측이 협력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홍보와 상담, 직원·소상공인 교육, 공단 시설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신청 지원 및 정보 제공, 기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 뒤이어 4월 29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 연구개발(R&D)과 신기술 도입·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연구원은 부산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성능 개선에 관한 협동 연구개발 등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공공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동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공동 홍보, 상호 기술교류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참여 등을 추진한다.



- 1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업무 추진협약
-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 업무 협약식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정규리그 준우승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이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은 2월 22일 강원도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경남개발공사를 33 : 23으로 꺾었다.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은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운영 중단으로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비록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권한나 선수가 핸드볼코리아리그 최초 900골을 달성하고, 대한핸드볼협회로부터 우수단체상, 우수선수상(심해인), 지도상(강재원)을 수상하는 등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20-2021 시즌에는 더 높이 비상하는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을 기대해본다.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협회로부터 우수단체상·지도상·우수선수상 수상

BISCO NEWS

동서로 개금휴게소 방음벽에 ‘벽면녹화’ 조성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동서고가로 개금 운전자 휴게소 방면 방음벽 일대에 높이 2m, 너비 8.1m의 대형 벽면녹화를 시범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벽면녹화는 기존 플랜트에 식물을 심어 벽면을 피복시키는 탈부착형 벽면녹화에서 벗어나 경량의 식재 모듈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을 꾀했다. 벽면녹화에 적응력이 뛰어난 녹색 식물 ‘수호초’ 바탕에 부산을 상징하는 흰색 갈매기 조형을 배치해 디자인적 요소도 더했다. 특히 식물의 자연적 미세먼지 흡착 기능에 더해 방음벽 사이 공간 상단에 설치된 환기팬과 식재 모듈의 기공으로 공기정화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 획득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부산시설공단이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 인증을 획득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결과 총 535곳의 기업, 단체 등이 선정됐다. 부산지역 중에서 선정된 공공 기관은 모두 12개다. 공단은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8년 연속으로 교육메세나 수상에 이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BISCO NEWS

두리발 복지매니저, 시각장애인 고객이 분실한 2백만원 찾아줘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아름다운 동행 두리발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처 소속 구본선 복지매니저가 시각장애인 고객이 떨어뜨린 돈 봉투를 주인에게 찾아줘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5월 20일 오전 9시경 출근을 위하여 북구 덕천3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두리발 차량을 청소하던 구매매니저는 시트 아래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여 북구 관내 덕천지구대에 곧바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덕천지구대 순찰 2팀 박모 경찰관 외 1명 입회하에 봉투에 든 200만원(5만원권 40장)을 확인하였고, 공단 사무실과 콜센터에 확인을 통해 전날 이용고객인 시각장애인 2급 이○○님을 찾아 돌려주었다. 구본선 복지매니저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때에 장애인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게 저희들의 임무인 만큼,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두리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성인지 감수성 함양 특별교육

www.bisco.or.kr | N E W S P A P E R | 2020_vol.83



공단은 6월 5일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임원 및 4급 이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의식 확산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원 정춘아 원장을 초청해, 성인지 감수성 개념과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추연길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과 의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조직 관리자의 올바른 성문화 인식 제고와 책임의식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SNS 속 부산시설공단

우리는 SNS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만 인증샷으로 남긴다.

SNS 속 '#부산시설공단'은 어떤 모습일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시민의 삶에 스며든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광안대교



nohsjin 김다혜가 결혼을 한다. 우리 다혜가 결혼을 한단다. 이상하다 느낌이. 10년 다되는데 다혜는 여전히 애같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다혜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부산시민공원



nohsjinh_xx 피크닉은 사랑이쥬
#피크닉 #부산시민공원 #어느날골목

#중앙공원



seooun_mom_love D+555
서은이랑 함께한 부산여행 날씨도 좋고 행복했다 진짜루
#18개월아기 #황금개띠아기 #베이비 #인스타베이비
#부산 #부산여행 #부산중앙공원 #육아그램 #성장기록

#부산유라시아플랫폼



donghyun56 24일 부산역 달 포토존 앞에서 포즈를 잡습니다.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 달이 떴습니다. 멋진 달이 설복을 주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부산시설공단

#태종대



ddong_j_i 우행시
#부산 #태종대

#영도대교



heo_su_ 영도대교 도개 (사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나는 너무 못 찍어준거 같아서 죄송)
.#영도 #영도대교 #영도대교도개 #럽스타그램

#어린이대공원



hyekyung.kwon.33 부산에서 마지막 여행지는 엄마아빠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 대학교 CC인 엄빠는 각자의 다른 추억을가지고 이
곳을 찾아 왔지만 오늘은 같은 추억을 만들고 떠난다~^^ 이제 이 곳은
내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성성이 어릴 때로 기억되겠지.. ㅎㅎ 그렇게
나들이어 가는 것~^^

#부산영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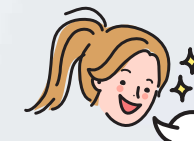


forever_7411 오늘은 영락공원이랑 추모공원다녀왔어요.
울 상민이작년만해도 가기싫다고 오자마자 가자고 난리였는데 이젠
멋진형아됐다고 어찌나 이쁘게 잘 하는지 .밖에나오면 하루가 참
짧은건 왜일까요? #설연휴 #부산영락공원 #기장추모공원 #기도하
는막둥이 #할머니소원들어주세요

#금강공원



mingi_n_jiwon 케이블카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겁이 나서 손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넘 귀엽다ㅋㅋ
오랫만에 산에 와서 신난 아이들 넘 좋네
#금강공원 #날씨좋은데 #쫄출다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인스타그램 #스토리발굴

인스타그램에 부산시설공단 사업장
(예)#부산시민공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에서
인생샷을 남겨주세요!

발굴된 스토리에는 소정의 상품과
사보에 실리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